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에서의 진로 정체감 효과: 비선형 다층모형의 적용*

이 지 영[†]

서울대학교

장 재 윤

성신여자대학교

신 희 천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네 차례에 걸친 종단 조사를 통해, 졸업 후 8개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와 이 변화에서의 진로 정체감 효과를 비선형 다층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의 변화양상은 4학년 1학년 시점을 시작으로 시간에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미결정과 직업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이후 지각된 통제감)은의 졸업 이전 정신건강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은 4학년 1학기를 시작으로 졸업 시점 즈음까지 GHQ 수치가 계속 높아지다가 졸업 이후 1~2개월인 3월과 4월 즈음에 가장 정점을 이루며 가장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 시점 이후에는 실업의 장기화와 함께 GHQ 수치가 다시 낮아지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신건강 변화에서의 진로 정체감 효과의 경우,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고 지각된 통제력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초기의 GHQ 총점을 비롯한 GHQ 우울·불안 및 GHQ 부적응 수치가 낮았으며 장기 미취업 상태가 되어도 GHQ 수치가 높아지지 않고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반면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고,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에 비해 실업의 장기화와 더불어 GHQ 수치가 높게 지속되었다. 이 결과는 실업이 개인들에게 동일한 정도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어 정신건강의 패턴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유사하지만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개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은 초기의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 수준에 의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대졸 미취업자, GHQ, 정신건강, 비선형 다층모형, 진로미결정, 지각된 통제감

*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이지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joyice94@snu.ac.kr

2007년 3월 4일에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청년실업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인 실업률은 3%대로 하락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청년실업률은 2003년 이후 7.9~8.3%의 높은 수준으로 고착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의 청년실업은 경기적 요인이나 인구변화와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산업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청년층 고학력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어 높은 청년실업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연합신문, 2007년 3월 5일).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한시적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보편화된 추세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08년 5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결과에서는 청년층이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일자리를 잡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다(한국재경신문, 2008년 7월 25일).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미취업이 지속되었을 때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미칠 개인적 영향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듯이 국내에서도 서구에 비해 아직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청년 실업에 대한 연구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이훈구, 김인경, 및 박윤창(2000)의 연구에서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시도에서 완전히 실패한 집단과 취업한 집단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류의 횡단 연구에서는 실직자 집단의 심리적 적응 수준의 저하가 실직 경험 이전부터 존재하던 실직자 집단의 특성인지 아니면 실직경험의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오경자, 1998).

이에 더 나아가,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및 한지현(2004)과 장재윤, 장은영, 및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학 4학년 1학기를 시작으로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및 네 차례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의 변화를 취업 집단과 미취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장재윤 등(2004)과 장재윤 등(2006)의 연구에서는 취업 집단과 미취업 집단의 정신건강에서의 차이가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았기 때문인지에 관한 '선택가설'과 실업이 장기화 되면서 정신건강이 악화되는지에 대한 '노출가설'의 경쟁가설을 종단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이전 국내의 청년실업 연구들은 방법론과 내용면에서 다소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분석 방법상의 한계로, 장재윤 등(2006)의 연구에서는 네 차례의 측정 시기에 개인에게 취업, 미취업 상태에 관한 여부를 질문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두 취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취업 집단'으로 네 차례 모두 미취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은 '미취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평균에서의 변화 및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종단 연구는 한 개인에게 네 번 반복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 내에서의 정신 건강의 변화를 비독립적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을 '취업' 혹은 '미취업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통합(aggregation)하여 각 개인이 정신건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Raudenbush & Bryk, 2002).

두 번째는 내용상의 제한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상태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는 알아보았으나, 동일한 취업 혹은 미취업 상태라

도 하더라도 정신건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미취업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이 이후 취업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의 개인차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장재윤 등(2006)의 연구에서도 취업 및 실업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다층모형을 이용한 개인차 변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선형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였다. 첫째, 장기 미취업자들의 개인 내 비독립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둘째, 장기 미취업자들의 진로 정체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반응에 대한 초기의 국내외 연구 대부분은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서의 차이(이훈구 등, 2000; Feather & O'Brien, 1986; Hammer, 1993; 장재윤 등, 2004; 장재윤 등, 2006)나 알코올 사용의 행동적 반응의 차이(Hammarstrom, Janlertt & Winefield, 2002)를 검증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McKee-Ryan, Song & Wanberg, Kinincki, 2005). 하지만 Eisenberg와 Lazarsfeld(1938)를 비롯한 몇몇의 학자들은 대부분의 실업연구에서 보여주

는 미취업 집단과 취업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검증에서 더 나아가 각 집단의 심리적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미취업자들의 실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적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훈구 등, 2000),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더욱 미취업상태로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설명할 수도 있다(Leana & Feldman, 1992a).

초기 단계모델

미국의 경우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장기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연구자들은 미취업 상태의 지속이 가져오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 양상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실직상황에 대한 반응은 구분되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계모델”을 제시하였다. 실업 반응에 대한 단계모델의 기원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비롯되었다(Leana & Feldman, 1992a). 예컨대 Selye(1956, 1974)의 일반적 적응 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경계단계, 저항단계, 탈진단계의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Fryer(1985)는 실업의 단계모델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이 죽은 이후에 반응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isenberg와 Lazarsfeld(1938)는 실업자에 있어서의 단계모델은 세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대체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실직자들이 충격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해 희망을 갖고 구직 노력을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구직 노력의 허사를 경험하면서 비관, 불안 등의 고통을 경

협하는 단계이다. 이는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만성적 적응기로, 이때 개인들은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이후 그 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실업에 대한 단계모델이 제시되었다. Kaufman(1982)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업에 대한 반응을 4단계로 묘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충격(shock), 안도(relief), 이완(relaxation)을 경험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다. 만약 이러한 구직 활동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실업상태에 있는 개인들은 동요, 자기의심, 분노를 경험하는 세 번째 단계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이 지속되게 되었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념(resignation)과 철회(withdrawal)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경험이 5-7개월의 상대적으로 단시간에 일어남을 추가적으로 밝혔다. Newman(1988)의 연구에서는 실업에 대한 반응은 이전의 실업 반응에 대한 단계모델과 유사한 과정을 겪지만 단계에서 단계로의 전환이 더욱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져 직업을 잃은 후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느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반발이론을 결합한 단계모델

실업에 대한 단계모델이 직관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고 심리적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는 각각의 단계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실업에 대한 단계모델을 제시한 Fryer(1985)도 실업의 경험이 단

계를 따른다는 증거는 양적으로 매우 미약하고 질적으로도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실업에 대한 단계적 모델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 개인의 반응이 변화할 것이라는 관점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Leana & Feldman, 1992a), 단계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이후에 몇몇 연구들이 시간에 따라 실업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두 개의 사회 심리학적 이론인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반발이론을 토대로 설명하려고 하였다(Cobb & Kasl, 1977).

학습된 무기력 이론(Seligman, 1975)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도 소용이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실업으로 이를 설명하자면, 실업자들은 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울하며 무감각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동기화되지 못한다(Leana & Feldman, 1992a; Leana & Feldman, 1992b). 실직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적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Leana와 Feldman이 1986년에 수행한 연구에서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부분적으로(modest)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Leana & Feldman, 1992a). 플로리다의 첼린저 호 폭파사건 이후 해고를 당한 163명의 실업자와 피츠버그의 강철 공장에서 해고를 당한 198명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연구에서는 단기 실업자나 혹은 장기 실업자나에 따라 자신의 현재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인 지각된 가역성(perceived reversibility)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오랫동안 실직상태에 있었던 장기

실업자들은 자신의 환경은 바뀌어 질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 반면 단기 실업자들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아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실업의 기간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장기 실업자의 반응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연구자들은 실직이 삶에서 위협적인 사건이며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가져다주지만, 실업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지며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동기화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업으로 인해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자극되고 동기화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Brehm(1966)의 반발이론을 바탕으로 왜 몇몇 장기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다시 가지려고 매우 동기화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Brehm(1966)의 이론이 적용된다면, 실업은 개인통제의 손실을 가져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통제감 혹은 자유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양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반발이론에서는 학습된 무기력과는 달리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노력을 부여함에 따라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후 실업 연구자들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과 반발이론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절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Wortman과 Brehm(1975)은 실업의 단계이론을 이 두 이론을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통제감을 잃었을 초기에는 반발적인 반응을 하는데 이는 반발이론으로 설명가능하고 실업이 지속되며 실패가 거듭될 때는 자신의 행동이 무기력

하다는 것을 배우며 우울함을 갖게 되는데 이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Leana와 Feldman이 1986년에 수행한 피츠버그와 플로리다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우울과 무감각을 실업 초기 6개월 동안 보여주다가 7개월에서 9개월에 접어들면서 우울감이 낮아지고 9개월을 넘었을 때는 다시 우울감이 증가하였다(Leana & Feldman, 1992a). 이는 초기에 반발적인 반응을 한다는 Brehm(1966)의 제안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처음 6개월 동안에 실업수당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개월 이후에 나타난 우울 저하는 Brehm(1966)의 반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나타나는 우울 상승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청년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

그렇다면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성인실업자가 아닌 청년실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는 어떠한가? 국외에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실업을 국가적 문제로 경험하기 시작한 1990년대 전후, 실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Winefield, 1997), 청년실업의 문제도 이 시점을 중심으로 성인실업 문제와 더불어 관심을 받게 되었다(예: Creed, 1999; Patterson, 1997). 특히 연구자들은 한 시점에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비교하는 횡단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시점과 다양한 시간 간격을 둔 종단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인실업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도 최종 시점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초기상태와의 비교를 하여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예: Winefield & Tiggemann, 1985)에서 더 나아가 몇몇 연구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년들의 미취업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Kasl, 1979; Warr, Jackson, & Bank, 1982; Payne, Warr & Hartley, 1984). 특히, 이 연구들은 성인실업에서 언급되었던 Eisenberg와 Lazarsfeld(1938)의 단계이론이 청년실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초기 Warr 등(1982)의 연구에서는 실업기간의 지속이 심리적 어려움(psychological distress) 및 자존감과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Warr와 Jackson(1984, 1985)은 이전의 Warr 등(1982)의 연구가 15세 정도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실업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5세 이상의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기간에 따른 심리적 변화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업기간과 심리적 영향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며, 실업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부정적 결과는 실업 이후 3-6개월 사이에 일어나며 그 이후에는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실업의 기간을 더욱 확대하여 18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실업기간과 심리적 영향의 변화를 살펴본 Rowley와 Feather(1987)의 연구에서는 실업기간은 자존감, 심리적 어려움 및 고용 몰입(employee commitment)에 유의하게 관계하지 않았다. 이와는 다르게 Warr와 Jackson(1987)의 연구에서는 계속 미취업 상태로 있는 청년실업자들은 15개월 25개월 사이에 정서적 안정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발견함으로써 일관된 결과를 보이

지 않았다.

이러한 혼합된 결과를 확증하고자 Winefield와 Tiggemann(1989)은 15세에서 17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이전에 기저선(baseline)을 측정하고 계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던 개인을 실업기간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업기간과 심리적 영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실업기간이 심리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더해 단계이론에서 제안한 비선형(curvilinear) 가설, 즉 심리적 어려움이 과연 6개월 즈음에 정점을 이루고 다시 하강하는 모양을 갖는지를 검증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 자존감 우울, 부정적 기분(negative mood) 모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3-6개월 미취업집단과 6-12개월 미취업 집단이 가장 낮은 향상점수(improvement score)를 보여 6개월 즈음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가장 악화되었지만, 15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나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Warr & Jackson, 1987).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거나, 있다면 정신건강이 시간에 따라 악화되나 6개월을 기점으로 안정되는 경우 또는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오히려 좋아지는 비선형적 패턴을 그리는 경우의 세 가지 정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성인실업자들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양상과도 다소 다른 결과이다. 즉, 성인실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양상이 초기에 반발이론을, 후기에 학습된 무기력이론을 따르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청년실업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건강이 안정되거나 오히려 완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실업에 따른 장기화와 정신건강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장기 실업자들의 심리적 반응

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따라 혹은 연구에 따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기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변량 반복측정의 방법론상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Rogosa & Willett, 1985). 이 분석 방법은 첫째, 대상자들을 다른 종류의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기대된 궤적을 살펴보기 때문에 개인의 절대적 변화의 과정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Raudenbush과 Bryk(2002)는 심리적 속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 내에서의 절대적 변화과정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방법은 시점에서의 상태에 따라 하위그룹을 구분하기 때문에, 고정간격으로 측정된 시점에서 개인의 상태를 알 수 없으면 하위그룹으로 지정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개인 내에서의 절대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고안된 다층모형은 반복된 관찰치가 한 사람에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유연할 수 있어 어떠한 시점에 결측치가 존재하더라도 한 개인의 변화양상을 추정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p.186).

둘째, 전통적인 다변량 반복측정은 측정 시점과 간격을 고정(fixed)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단지 그 시점에서의 상태만을 파악할 수 있음에 비해 개개인의 궤적에 초점을 둔 다층모형은 시작 시점에서의 개인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궤적의 변화 양상이 개인에 따라 유의한지, 그리고 궤적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다변량 반복측정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점 중 세 번째에서의 정신건강이 가장 양호했다는 알 수 있는 것에 반해, 다층모형

에서는 그 정점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사이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변량 반복측정에서는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반복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지만 이것은 개인 각각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의 효과를 알아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반복되는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살펴볼 수 있으나 개인 고유 특성이 시간 변화에 따른 심리적 영향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실업자들의 장기화 양상에 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비일관적인 결과가 무엇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변화에 미치는 장기 미취업자들의 개인 고유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대졸 청년 미취업자들의 장기 실업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양상에 진로 정체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과 진로 정체감

실업은 개인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외상적인 사건 중의 하나(Holes & Rahe, 1967)이다. 초기의 실업연구에서의 관점과 달리, 많은 연구들에서는 실업에 처한 개인은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Leana, Feldman, & Tan, 1998)가 아니며 동일한 실업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구체적인 대처방략들을 통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증거들을 검증해 왔다(예: Wanberg, Griffiths, & Gavin, 1997). 다시 말해, 실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실업에 대한 대처행동의 개인차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이다.

McKee-Ryan, Wanberg, 및 Kinicki(2005)의 실

업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대처 자원(coping resources), 인지적 평가(cognitive appraisal),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 인적 자원과 인구통계학적 특징(human resource & demographics), 일 중심 가치(work-role centrality)에 따라 개인의 대처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중 많은 연구들은 특히 자존감, 통제 소재, 일반적 자기 효능감 등과 관련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 등의 대처 자원, 인지적 평가 및 대처전략에 많은 초점(e.g. Aspinwall & Taylor, 1992; Wanberg, 1997)을 맞춘 반면 고용몰입(employee commitment), 일 관여(work involvement)와 같은 일 중심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성인실업자가 아닌 청년실업자들은 직업을 구해야 하는 과제 이외에도 학교-직장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의 발달 과제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빠르게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인생동안 어떠한 직업을 가질 것이며, 직업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Johoda(1981, 1982)는 그의 박탈 이론(deprivation theory)에서 사회적 정체성 또는 상태 박탈이 실업자들의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Banks와 Evan(1989)과 Hendry(1989) 등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Johoda의 사회적 정체성 박탈이 미치는 영향이 성인실업자가 아닌 청년실업자들에게 왜 더욱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해주었다.

Winefield와 Tiggemann(1989)도 청년실업자들

에게는 경제적 박탈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보다 기대에 대한 좌절(failure of expectation)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욱이 청년들에게 있어 기대에 대한 좌절은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Patterson, 1997).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한층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Ullah & Brotherton, 1989).

Johoda(1981, 1982)와 Winefield와 Tiggemann(1989)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청년실업자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와 그것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장기 미취업 상태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년실업자의 경우,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像)은 앞으로 획득될 직업과 관련이 깊을 수 있어 그 직업이 어떻게 획득되어지고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과 새롭게 얻어질 직업이나 일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실업 상태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Fugate, Kinicki 및 Ashforth(2004)는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진로 정체감(career identity)을 개념화하였다. Fugate 등(2004)은 진로 정체감이란 ‘진로 또는 경력 상황에서의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아는 것(knowing-why)’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진로 기회를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인지적 나침반(cognitive compass)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여 왜 가야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도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행동

을 이끌고(direct), 조절(regulate)하고 계속(sustain)하게 한다(Lock, Shaw, Saari, & Latham, 1981). 특히, 이것은 개인들이 조직의 경계밖에 있을 때 진로의 방향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McGreevy, 2003). 실업 상태와 같은 진로 전환(career transition)의 시기에서 자신의 진로 정체감을 안내서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목표 설정과 의사 결정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진로 기회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다(McArdle, Water, Briscoe, & Hall, 2007). Fugate 등(2004)은 실직의 대처에 있어 진로 정체감이 재취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는 대처행동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제안하였다.

진로 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목표 설정과 이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McArdle 등, 2007). 예를 들어, 최근 126명의 오스트리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정체감과 재취업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McArdle 등(2007)의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의 지표로 Stump, Colarelli 및 Hartman(1983)의 정체감 인식(identity awareness)을, 능력에 대한 지각의 요소로 Kossek, Roberts 및 Demaarr(1988)의 진로 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 정체감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으로 설정하여 정신건강 변화양상에 미치는 진로정체감 효과를 살펴보았다.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은 ‘현재 상태 이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이지영, 장재윤 및 김명언, 2005),

대학 졸업자의 경우 진로(career)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로 얻게 되는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의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추구할 직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직업 정보부족, 직업에 대한 자기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으며, 반대로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종사하고 싶은 직업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직업에 대한 자기이해를 잘 하고 있어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McArdle 등(2007)의 연구에서 진로 정체감의 하나로 측정된 정체성 인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직업과 관련된 외부환경에 대한 직업정보와 직업과 관련하여 내부 환경인 자신에 대한 정보가 자신이 진로의 궤도에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Stump 등, 1983).

한편, 진로 정체감을 개념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 Fugate 등(2004)과 McArdle 등(2007)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직업탐색행동, 재취업 간의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밝힘으로써 실업상태에서의 진로 정체감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변인으로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의 많은 청년실업 연구에서는 실업상태에서의 다양한 대처행동이 심리적, 육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검증해왔으며 심리적 안녕에 대한 결과를 보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일반정신건강척도(GHQ)를 사용하여 왔다(e.g. Hannan, O'Biani & Whelan, 1997; Patterson, 1997; Schaufeli, 1997). 일반정신건강척도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

제를 살펴보는 정서적 차원과 적응 수준을 살펴보는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적 변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느 차원에 더 많이 관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미결정의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진로미결정과 정신건강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왔다(Fuqua, Seaworth, & Newman, 1987; Herr, 1989; Spokane, 1989). Goede, Sprijt, Iedema 및 Meeus(1999)의 연구에서는 15-24세의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직업 정체성(vocational identity)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레스(stressor)의 하나로 실업에 처한 상황인지 여부를 측정하였는데, 스트레스는 직업 정체성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가졌으며, 직업 정체감은 일반정신건강(GHQ)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실업 상황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지지해주는 결과였다.

Fugua 등(1987)의 연구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로미결정과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불안은 하루아침에 변화 될 수 없으며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안정적 성격 특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둘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진로미결정의 만성적 특징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Hartman, Fuqua, 및 Blum(1985)의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집단이 진로결정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면서 만성적 미결정은 특성불안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대학 졸업자들은 실업의 상태에 놓였을 때 진로에 대

한 정체성인 진로미결정 정도에 따라 동일한 실업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학 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수준은 자신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직업을 결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로미결정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실업상태라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할지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반면,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더 이상 학생의 신분이 아닌 경우에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모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실업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조정하고, 지속하는데 안내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개인들의 정신건강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양호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각된 통제감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함께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facility)이 중요하다(Parker, 1984). Patterson(1997)은 청년실업자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미래 계획 능력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계획 실행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대처에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계획 실행 능력은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지, 또는 통제감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각된 통제감(perceived control)이란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자신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황적 통제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실업 상황에서 상황적 통제감이 쓰일 경우, 재취업 또는 취업이 얼마나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몇몇 실업 연구에서는 실업의 대처행동에 개인차를 보이는 변인으로 지각된 통제감에 관심을 가져왔다. 예컨대, Wanberg(1997)는 성인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지각된 통제감, 낙관주의가 단기 정신건강(short-term mental health), 장기 정신건강(long-term mental health),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실업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situational control)은 적극적인 탐색행동(proactive search)과 상호작용을 보이며 단기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실직에 대한 생각 회피(distancing from loss)와도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장기 정신건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각된 통제감이 직접적으로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으나 대처행동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업기간 중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Saks와 Ashforth(1999)의 연구에서도 개인차 변인의 하나로 구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측정하여 실업기간 동안의 구직 행동과 취업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차례의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구직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활동적 구직행동(active job search behavior) 및 구직강도(job search intensity)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가졌으며,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제외한 지각된 통제감만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시점 모두에서의 취업상태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에 대해 Saks와 Ashforth(1999)는 높은 지각된 통제감을 가진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하는데 더욱 계산적(calculated)이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구직활동에 있어 덜 적극적이고 덜 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각된 통제감은 직업탐색행동과 관계없이 취업상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일수 있어 실업 연구의 개인차 변인으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지각된 통제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실업기간의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감이 진로미결정과 더불어 장기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선형 모델을 통한 변화양상과 변화양상에 대한 진로 정체감의 개인차에 대한 분석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HLM(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개인 내 비독립성을 반영한 정신건강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정체감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실업에 대한 단계모형, 국내의 장재윤 등(2004)과 장재윤 등(2006)의 연구로 미루어보아, 정신건강에 대한 변화 양상은 선형적 모형(linear model)이 아닌 비선형적 모형(nonlinear model)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비선형적 모형은 성장궤도 모형(quadratic growth model) 혹은 반복측정 모형이라고 불리며, 이는 개인 내 모형인 1수준 모형과 개인 간 모형인 2수준 모형으로 구분하여 표현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심리적 속성의 변화를 추정하는 1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_{ti} = \pi_{0i} + \pi_{1i}a_{ti} + \pi_{2i}a_{ti}^2 + e_{ti}$$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개인 i 가 특정 시점 t 에서 추정된 결과인 Y_{ti} 는 개인의 초기 능력($t=0$ 일 때의 π_{0i})과 시간의 선형효과, 시간의 비선형효과 그리고 오차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몇 차식으로 방정식을 설정할까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점에서 2를 뺀 시점으로 상정한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측정에 의해 다양한 시점의 자료가 얻어진다고 해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차 또는 3차 곡선효과까지만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네 차례의 걸친 시점에서 2를 뺀 시점으로 이차식으로 비선형 모형을 설정하였다.

비선형 모형에서는 센터링(centering)이 중요할 수 있다. 센터링을 하지 않고 기본식과 같이 a_{ti} 와 a_{ti}^2 를 설정하면 변화 비율에 대한 두 측정치의 상관성이 매우 높아 질 수 있어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시점으로 센터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두 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첫째는 자료수집 기간 동안의 평균 성장 비율인 평균속력(average velocity)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추정 절차를 안정화 하는 효과로 a_{ti} 와 a_{ti}^2 의 상관을 최소화 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비선형 모형의 기본 모형과 진로 정체감의 개인차 변인을 추가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a_{ti} - 2) + \pi_{2i}(a_{ti} - 2)^2 + e_{ti}$$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text{career indecision})_i + \beta_{02}(\text{perceived control})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career indecision})_i + \beta_{12}(\text{perceived control})_i + r_{1i}$$

$$\pi_{2i} = \beta_{20} + \beta_{21}(\text{career indecision})_i + \beta_{22}(\text{perceived control})_i + r_{2i}$$

방 법

조사시기

본 연구는 장재윤 등(2006)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전국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4회의 종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조사는 2003년 5월에 실시하여 졸업예정자들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로 인해 영향받기 전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3년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시기이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4년 5월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1차 대상자들이 졸업 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되어 이때까지 취업을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기 미취업상태로 규정지을 수 있는 시기이다. 4차 조사는 3차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이 지난 2004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실시되었으며, 졸업 후 8개월이 되는 이 시점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 미취업상태로 규정지을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조사절차 및 대상

본 연구의 조사절차 및 대상은 장재윤 등(2006)의 연구와 동일하다. 1차 조사에서 4차 조사까지 자세한 조사방법은 장재윤 등(2006)에 소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를 간략히 요약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각 지역별 표본 내에서 학교별 표집인원을 배분한 후 국공립과 사립대의 비율, 계열 및 남녀 비율에 맞춰 표본수를 규정한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전국의 20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각대학당 150명의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실시하여 총 2,74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취업에 의사가 없거나 이미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은 제외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자와 사회적 선회도 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타당하지 못한 사례를 제외하고 총 2542명의 자료가 1차 조사 자료에 포함되었다.

2차, 3차, 4차 조사는 1차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그 방식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1차 조사 시점에서 입수한 메일주소를 확인한 후, 설문응답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조사 한 달 전에 모든 1차 응답자들에게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을 보냈으며 응답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인터넷 상품권(1만원 상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이 반송되거나 읽지 않고 삭제된 경우에는 전화요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였고 설문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01명의 응답이 2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 자료로, 3차 조사에서는 1,384명이 타당한 분

석 자료로 수집되었다. 마지막 4차 조사에서는 설문 응답률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참여자들에게 인터넷 상품권을 줄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또한 사전 협조 요청 이메일이 반송되거나 읽지 않고 삭제된 사례의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4차 설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674명에게 4차 조사에 응해 달라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총 76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졸업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67명의 자료 중 현재 미취업 상태라고 응답한 2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자료로 선별되었다.

최종 자료 분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27명(48.7%), 여성이 134명(51.3%)이었으며, 연령별로는 전체 261명 중 252명(96.6%)이 21세에서 26세 사이에 해당되었으며, 27세에서 30세 사이가 4명(1.5%)이었고, 결측치가 5명(1.9%)이었다.

변인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연구자들이 참여한 ‘청년실업에 대한 패널조사 연구’에서 측정된 일부 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시점에 따른 변화양상의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정신건강(GHQ)은 1차, 2차, 3차, 4차 시점 모두에서 반복 측정되었으며, 개인차 변인으로 선정한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은 모두 센터링이 되는 시점인 2차 조사에서 측정되었다.

도구

일반정신건강 척도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측정치는 일반정신건강질문지(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이다(Murphy & Athanassou, 1999, 90쪽에서 인용). GHQ는 Goldberg(1972)가 개발한 척도인데, 현재를 포함해 지난 2-3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응답자의 평소 심리상태와 비교함으로써 현재의 정신건강 상태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방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척도인 KGHQ-30의 30문항 중 신현균과 장재운(2003)이 사용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2문항은 우울·불안 요인 6문항, 사회부적응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GHQ는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점은 '전혀 아니다', 2점은 '아니다', 3점은 '그렇다', 4점은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으며, 값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2차, 3차, 4차 조사에서 얻은 척도의 신뢰도는 우울·불안의 경우 네 시점의 순서대로 $\alpha = .77$, $\alpha = .81$, $\alpha = .83$, $\alpha = .79$ 이었고, 사회부적응의 경우에는 $\alpha = .81$, $\alpha = .83$, $\alpha = .82$, $\alpha = .84$ 이었다. 전체 12문항에서는 $\alpha = .83$, $\alpha = .86$, $\alpha = .86$, $\alpha = .85$ 이었다. 응답자별로 우울·불안 6문항, 사회부적응 6문항, 전체 12문항의 총합을 구하여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진로미결정 척도

Osipow(1999)의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을 기반으로 탁진국과 이기학(2001)에 의해서 개발된 직업결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직업정보부족 6문항, 자기이해부족 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

4문항, 외적 장애의 4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분량상의 제한으로 각각의 요인에서 각 3문항씩을 선별하여 총 15문항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신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 적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등이 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에 표기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직업정보부족은 .85, 자기이해부족은 .84, 우유부단성격 .77, 필요성인식부족은 .82, 외부장애는 .70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지각된 통제감 척도

구직 결과(job search outcome)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지각된 통제감은 Saks와 Ashforth(1999)가 고안한 5문항 중 두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1) "나의 취업여부는 경제상황에 달려 있다", (2) "나의 취업여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이며, '그렇지 않다'(1점) - '그렇다'(5)의 5점 척도에 표기하게 하였다. 역점수로 변환하였으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취업에 대한 통제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60을 나타냈다.

분석방법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의 변화양상과 그에 대한 진로 정체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HLM을 이용한 비선형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 내 정신건강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1수준의 분석에서는 네 시점에서 각

각 측정항 정신건강의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 1수준의 자료는 총 1044개(261명*4시점)여야 한다. 그러나 HLM에서는 1수준의 결측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측치 처리를 하지 않아도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1044개의 자료 중 일반정신건강(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 모두 72개가 결측치가 존재하여 총 972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시점별로의 응답자를 살펴보면, 네 시점 모두에서 각 변인을 모두 응답한 대상자는 190명이며, 세 시점을 응답한 대상자는 70명, 두 시점을 응답한 대상자는 1명이었다.

개인차를 나타내는 진로 정체감의 진로미결정은 57개, 지각된 통제감은 55개의 결측치를 보였다. HLM에서는 1수준과 달리, 2수준을 나타내는 개인차 변인에는 결측치가 없어야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측이 된 응답자의 변인을 버리거나,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series means) 등이 존재한다. 2수준에서의 결측치 변인을 버리는 경우, 응답자의 1수준의 네시점에서의 GHQ 점수를 가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평균대치방법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표 1에서의 굵은 글씨체는 .50 이상의 상관을 보인 변인들이다. 동일변인들이 여러 차례 측정된 경우 .50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T1 GHQ 총점은 T3 GHQ

총점과의 상관에서만 .49를 나타냈을 뿐 T2 GHQ 총점과 T4 GHQ 총점과는 .56, .50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T2 GHQ 총점도 T3 GHQ 총점과 T4 GHQ 총점과 .61과 .63의 상관을 보였으며, T3 GHQ 총점과 T4 GHQ 총점 간의 상관도 .66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중에서도 특히 한 시점 앞서 측정된 변인들과의 상관이 다른 것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GHQ 총점은 GHQ 부적응과 .82~.86의 유의한 상관을, GHQ 우울·불안과는 .87~.90사이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GHQ 우울·불안과의 상관이 GHQ 부적응에 비해 다소 높은 상관수치를 나타냈다. GHQ 우울·불안과 GHQ 부적응의 상관은 .29~.57 사이에 위치하였다. 동일시점에 측정된 경우, T1시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점에서는 서로의 상관이 .50 이상으로 다소 높았으나 동일시점이 아닌 경우는 .50을 넘지 않았다.

T2 진로미결정은 T2 GHQ 총점과 .57로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T2 GHQ 부적응과 .54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T2 지각된 통제력은 T2의 GHQ 우울·불안과 -.28, T2 GHQ 총점과 -.26, T2 진로미결정과 -.22 순으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상관이 높게 나타난 변인들의 특징은 T2인 동일시점에 측정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시점에서 동일 설문지로 측정된 공통 방법 변량(common method variance)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비선형 다층분석을 이용한 정신건강의 변화양상

비선형 다층분석으로 정신건강의 변화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예측 변인을 투여하지 않은

표 1.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

	M(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T1_GHQ 총점	2.36(0.36)	1													
2. T2_GHQ 총점	2.34(0.42)	.56**	1												
3. T3_GHQ 총점	2.41(0.47)	.49**	.61**	1											
4. T4_GHQ 총점	2.35(0.49)	.50**	.63**	.66**	1										
5. T1 GHQ 우울·불안	2.41(0.54)	.87**	.49**	.46**	.44**	1									
6. T2 GHQ 우울·불안	2.42(0.54)	.50**	.89**	.55**	.58**	.51**	1								
7. T3 GHQ 우울·불안	2.52(0.58)	.47**	.59**	.91**	.66**	.48**	.58**	1							
8. T4 GHQ 우울·불안	2.43(0.59)	.45**	.58**	.60**	.90**	.46**	.59**	.66**	1						
9. T1 GHQ 부적응	2.31(0.32)	.82**	.47**	.37**	.39**	.43**	.33**	.30**	.28**	1					
10. T2 GHQ 부적응	2.25(0.44)	.48**	.83**	.51**	.51**	.32**	.50**	.43**	.40**	.50**	1				
11. T3 GHQ 부적응	2.29(0.47)	.39**	.48**	.86**	.50**	.31**	.37**	.57**	.37**	.36**	.48**	1			
12. T4 GHQ 부적응	2.26(0.52)	.41**	.52**	.57**	.86**	.29**	.41**	.49**	.54**	.42**	.50**	.52**	1		
13. T2 진로 미결정	2.51(0.49)	.30**	.57**	.27**	.41**	.24**	.45**	.25**	.35**	.27**	.54**	.24**	.36**	1	
14. T2 지각된 통제감	3.02(0.73)	-.15*	-.26**	-.20**	-.14**	-.17**	-.28**	-.19**	-.13*	-.09	-.16**	-.17**	-.11	-.22**	1

** p<.001

기본 모형(unconditional model)을 검증해야 한다. 본 모형은 최초의 시점을 1이라고 하였을 때 두 번째 시점을 기준으로 센터링하였으며, 기본 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a_{ti} - 2) + \pi_{2i}(a_{ti} - 2)^2 + e_{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r_{0i} \\ \pi_{1i} &= \beta_{10} + r_{1i} \\ \pi_{2i} &= \beta_{20} + r_{2i} \end{aligned}$$

1수준 모형에서는 한 개인에게서 반복 측정된 GHQ가 개인 내(within-individual)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Y_{ti} 는 GHQ를 나타내며 π_{0i} 은 모델의 절편을 의미하는데, 본 식에서는 a_{ti} 가 2일 때의 값이므로 두 번째 시점에서의 GHQ의 값을 나타낸다. π_{1i} 는 일차식의 기울기(slope)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한다. π_{2i} 는 이차식의 계수로, 시점이 변화할 때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2수준 모형에서는 각각의 절편, 기울기, 가속도가 개인 간(between individual)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각각의 식은 개인 간 절편 평균, 기울기 평균, 가속도 평균을 나타내는 β_{00} , β_{10} , β_{20} 와 각 개인이 평균에

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무선효과를 나타내는 r_{0i} , r_{1i} , r_{2i} 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GHQ 총점은 GHQ 우울·불안과 GHQ 부적응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상관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GHQ 총점이 각각의 하위 요인과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각각의 하위 요인은 .50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개념적으로도 구분하여 측정, 분석하기 때문에 본 분석결과에서는 하위요인별 분석도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GHQ 총점은 초기치 값으로, T2가 0일 때의 절편 값 즉 T2에서의 개인들의 GHQ 평균값은 약 2.37이었다. GHQ 평균 변화율은 0.03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GHQ 평균 변화 가속도는 -0.02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GHQ 우울·불안은 T2에서의 개인들의 GHQ 평균값은 2.47이었으며, GHQ 평균 변화율은 0.05, GHQ 평균 변화 가속도는 -0.03이

표 2. 정신건강 변화에 대한 기본모형 결과

효과	변인	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β_{00}	T2에서의 평균 GHQ	2.3718***	0.0242	2.4741***	0.0242	2.2691***	0.0244
	β_{10}	GHQ 평균 변화율	0.0337*	0.0134	0.0464**	0.0134	0.0207	0.0153
	β_{20}	GHQ 평균 변화 가속도	-0.0210*	0.0089	-0.0315**	0.0089	-0.0104	0.0107
무선효과	r_{0i}	T2에서의 GHQ의 개인차	0.1070***	0.3271	0.1660***	0.4073	0.0890***	0.2999
	r_{1i}	GHQ 변화율의 개인차	0.0125***	0.1120	0.0217***	0.1474	0.0123**	0.1111
	r_{2i}	GHQ 변화 가속도의 개인차	0.0010	0.0320	0.0020	0.0449	0.0016	0.0401
	e_{ti}	오차항	0.0733	0.2708	0.1210	0.3478	0.1041	0.3227

반복 측정된 GHQ 경우 총 1044 중 972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었다. GHQ 총점의 결과와 같이 절편, 변화율, 변화 가속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GHQ 부적응은 T2에서의 개인들의 평균 GHQ 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며 2.27정도의 평균 을 보였다. GHQ 우울·불안이 GHQ 총점에 비해 계수의 절대적 수치가 다소 크기는 하지만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각각의 개인 내에서 변화하는 GHQ 총점과 GHQ 우울·불안은 유의하게 다른 양상을 띄었으며, GHQ 총점의 이차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포물선은 GHQ 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즉 T1에서 T3 정도까지는 GHQ 수준이 계속 증가하다가 T2와 T3 사이에서 정점을 이루고 T3 에서는 그 이후 다시 T4로 향하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선형 다층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집단 별 평균값을 중심으로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과 달리 미분식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변화율을 0으로 설정하면, 최

고의 정점을 이루는 시점을 알 수 있으며 t시점에서의 변화율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text{시점에서의 변화율} = \pi_{1i} + 2\pi_{2i}(a_{ti} - 2)$$

변화율에 0을 투입하면 t값은 2.80이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의 간격이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2.80은 T2에서 T3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10월 말~11월 중순으로부터 4.8개월 뒤(약 4개월 24일)의 시점임으로 그 다음해 3~4월경에 GHQ 값이 가장 정점을 이룬다 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 졸업식이 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대학 졸업식 후 약1~2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이 결과는 단기 미취업이라고 가정했던 졸업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좋지 않다가 장기 미취업으로 규정된 T3~T4에서는 정신건강 상태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에서 GHQ의 하부요인에 대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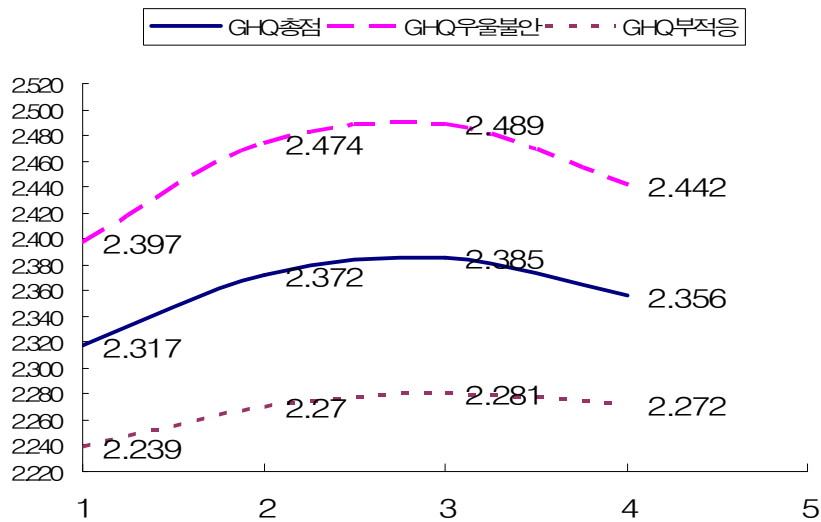


그림 1. 청년 미취업자들의 GHQ 총점, GHQ 우울·불안 및 GHQ 부적응의 변화양상

을 살펴보면, GHQ 우울·불안은 GHQ 총점에 비해 높은 초기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GHQ 부적응의 경우 GHQ 우울·불안과는 다르게 GHQ 총점에 비해 낮은 초기치를 나타냈다. 포물선의 형태에 있어서도 GHQ 부적응은 GHQ 총점과 GHQ 우울·불안에 비해 완만한 곡선의 모양을 나타냈다. 그러나 세 결과변인 모두 전반적인 패턴은 유사했다. 즉, T3 이전에 최고 정점을 이루다가 다시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GHQ 우울·불안과 GHQ 부적응의 경우에도 t시점에서의 변화율 식을 이용하면 최고치를 이루는 시점을 알아볼 수 있다. GHQ 우울·불안의 경우, 변화율에 0을 투입하여 구한 t값은 2.74였으며 이는 T2와 T3 사이의 4.5개월 정도에 GHQ 우울·불안이 최고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 GHQ 우울·불안의 최정점은 GHQ 총점의 최정점보다는 0.5개월 정도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GHQ 부적응의 경우는 GHQ 평균 변화율과 GHQ 평균 가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시점에 따라 개인내의 GHQ 부적응이 의미 있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GHQ 부적응이 최고치를 이루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t값이 3.0 정도로 이는 졸업 후 3개월 정도가 되는 시점에 부적응 수치가 가장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GHQ 변화양상에 개인차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 모형의 무선효과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 모두에서 T2에서의 절편과 변화율에 대한 개인차 효과는 나타났으나 변화 가속도에 대한 개인차 효과는 세 결과변인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절편에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T2에서 개인의 내외부적 특성에 의해 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의 값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차식의 계수인 변화율에서 개인차 효과가 있다는 것은 변화 가속도인 이차식의 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개인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의 최고치를 이루는 시점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본 모형의 무선효과에서는 변화 가속도에서 개인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더 빨리 GHQ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본 모형에서의 개인차 효과의 유의미도는 개인차를 예측하는 변인의 투입 여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 모형 분석의 다음 단계로, 절편과 일차식의 계수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진로 정체감의 두 변인인 진로미결결과 지각된 통제감을 2수준 모형에 투입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정신건강 변화양상에서의 진로 정체감 효과

정신건강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 진로 정체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Y_{ti} = \pi_{0i} + \pi_{1i}(a_{ti} - 2) + \pi_{2i}(a_{ti} - 2)^2 + e_{ti}$$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text{career indecision})_i + \beta_{02}(\text{perceived control})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text{career indecision})_i + \beta_{12}(\text{perceived control})_i + r_{1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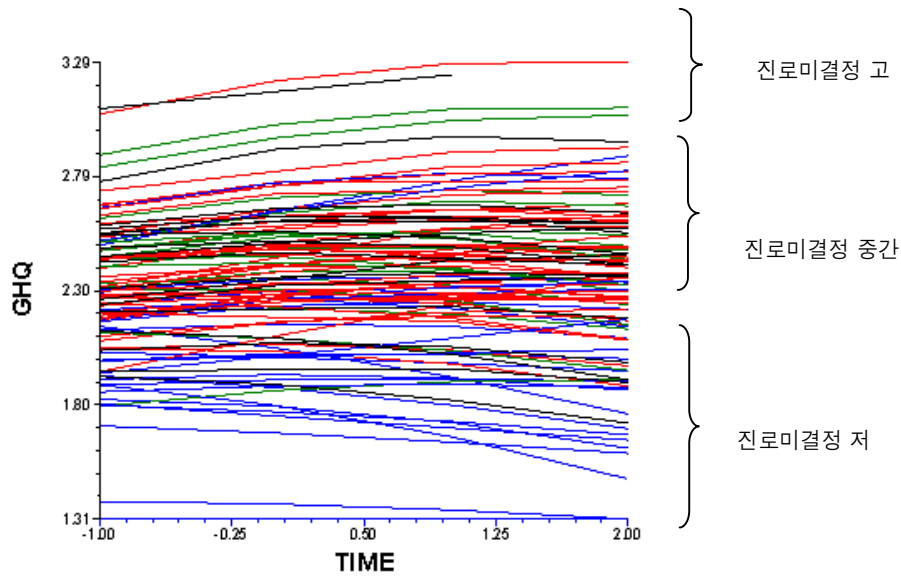


그림 2. 청년 미취업자들의 GHQ 총점 변화양상에서의 진로미결정 수준에 따른 효과

표 3. 정신건강 변화에 진로 정체감의 효과에 대한 결과

효과	변인	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T2의 GHQ 절편	β_{00}	2.3718***	0.0213	2.4742***	0.0278	2.2696***	0.0219
	β_{01}	0.2843***	0.0463	0.2817***	0.0564	0.2845***	0.0499
	β_{02}	-0.1044**	0.032	-0.1273**	0.0362	-0.0822*	0.0349
고정효과 변화율 변화 가속도	β_{10}	0.0339*	0.0134	0.0467**	0.0173	0.0211	0.0153
	β_{11}	0.0335	0.0277	0.0389	0.0376	0.0260	0.0282
	β_{12}	-0.0033	0.0206	-0.0057	0.0230	0.0014	0.0195
	β_{20}	-0.0211*	0.0089	-0.0316**	0.0114	-0.0108	0.0107
	β_{21}	-0.0063	0.0175	-0.0051	0.0243	-0.0078	0.0172
	β_{22}	0.0124	0.0120	0.0187	0.0112	-0.0067	0.0099
무선효과	r_{0i}	0.0773***	0.2781	0.1308***	0.3617	0.0701***	0.2648
	r_{1i}	0.0067***	0.0818	0.0103***	0.1014	0.0077***	0.0880
	e_{ti}	0.0756	0.2749	0.1254	0.3541	0.1080	0.3285

반복 측정된 GHQ 경우 총 1044 중 972개의 자료,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은 261개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p < .05$, ** $p < .01$, *** $p < .001$

$$\pi_{2i} = \beta_{20} + \beta_{11}(\text{career indecision})_i + \beta_{22}(\text{perceived control})_i$$

이식은 앞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수식 (p.586)과 동일하나, 변화 가속도를 나타내는 π_{2i} 에서의 무선효과를 제거한 것만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기본 모형 분석에서 변화 가속도에 대한 개인차 효과가 GHQ 총점을 비롯한 GHQ 하위요인 모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간결성을 위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다.

GHQ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 진로 정체감의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GHQ 총점, GHQ 우울·불안, GHQ 부적응의 변화양상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 수준은 1차 수준 모형의 절편을 예측하는 β_{00} , β_{01} , β_{02}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일차식의 변화율과 이차식의 변화가속도에는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의 개인차 효과는 세변인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GHQ 총점과 GHQ 우울·불안의 경우에는 일차식과 이차식의 절편에서는 개인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미결정의 효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나타난 하나의 선은 한명의 개인을 의미하므로 모든 개인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총261개의 선을 얻을 수 있으나, 선의 중복으로 인해 구분이 어려워 질 것을 고려하여 전체 응답자의 40%만을 무선으로 선택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미결정이 높은 고 집단의 미취업자들은 4학년 1학기 시점(time =-1)에서부터 높은 GHQ 수치를 보여,

시간이 흘러도 계속 좋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진로미결정 상태를 나타내는 진로미결정 저 집단은 4학년 1학기 시점부터 낮은 GHQ 수치를 나타내며 계속 나쁘지 않은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각된 통제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즉,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초기부터 높은 GHQ 수치를 나타낸 반면, 높은 지각된 통제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낮은 GHQ 수치를 보여 시간이 변하여도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 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은 변화율과 변화 가속도에서는 개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양상은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논 의

실업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심

- 1)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기본 모형과 진로 정체감의 두 변인을 투입한 모형 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식에 두개의 모형에서 얻어진 절편의 개인차를 나타내는 r_{0i} 의 변량(variance)을 투입하여 계산해본 결과, 개인의 진로 정체감은 GHQ 총점에 약28%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c{\hat{\tau}_{00}(\text{기본모형}) - \hat{\tau}_{00}(\text{진로/경력 정체감 투입 모형})}{\hat{\tau}_{00}(\text{기본모형})} = \frac{0.107 - 0.077}{0.107} = .28$$

리적, 육체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결과들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왔다(예: Feather & O'Brien, 1986; Hammer, 1993; Patterson, 1997; Winefield & Triggermann 1985; Winefield 등, 1991). 하지만,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면(Warr & Jackson, 1984, 1985; Warr & Jackson, 1987; Winefield & Tiggemann, 1989;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1) 실업이 지속되었을 때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악화되는지 또는 완화되는지의 반응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Raudenbush(2001) 외 여러 학자들(Rogosa, Brand, & Zimowski, 1982; Rogosa & Willett, 1985; Willett, 1988)은 이전의 종단 연구는 동일 대상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경우 두 차례의 이상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 변화양상에 대한 모형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를 파악하는데 있어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의 주제를 가지고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의 반복측정을 통해 실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이들의 정신건강이 단계모델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정신건강의 변화가 개인의 진로 정체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비선형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함으로써 위의 세 가지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졸업 후 8개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대졸 미취업자들의 일반정신건강 측정치인 GHQ 수준은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기전인 4학년 1학기(T1)를 시작으로 점차 상승하며 졸업을 하는 시점까지

유의미하게 계속 높아졌다. GHQ는 졸업 이후 약 1~2개월이 되는 시점인 3~4월경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시점을 정점으로 하여 GHQ 수준은 다시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으나 졸업 후 8개월이 되는 시점(T4)의 GHQ 수준은 4학년 1학기의 시점에 비해서는 더욱 낮지는 않았다.

실업의 단계모델(예: Eisenberg & Lazarsfeld, 1938)에서 주장했던 바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대졸 졸업자의 정신건강은 역U자의 비선형적 패턴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U자 패턴의 최정점 시기와 그를 해석하는데 있어, 청년실업자들이 성인실업자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청년실업은 성인 실업과 달리 실업의 분명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둘째 청년실업의 경우 구직활동이 실업 시점과 관계없이 졸업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대졸 미취업자들의 정신건강 반응이 단계 모형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공식적인 실업의 지표인 대학 졸업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실업 반응 단계에서 중요한 요점이라고 본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졸업 1~2개월 이후에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진 결과는 단계 모형의 4단계인 수용과 적응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을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던 졸업 후 1~2개월 시점에는 졸업과 함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우울, 불안 등이 더욱 악화되어 정신건강의 부정적 영향이 더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졸업 후 3개월

이전에 다시 완화되는 형태를 가졌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대략 1년 동안의 구직 활동으로 인한 자신들의 어려움의 경험들을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적 영향을 지속하지 않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 자연스런 본능일지도 모른다. Folkman(1997)은 에이즈를 앓고 있는 배우자와 죽음을 맞이한 배우자를 둔 사람들 442명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5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배우자의 죽음 전 1달과 죽음 이후 5달까지는 일발 사람들의 긍정적 정서 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지만, 4달 이후에는 의미부여(meaning), 긍정적 재해석(positive appraisal) 등의 대처전략들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긍정적 정서를 다시 회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대졸자들이 학생의 신분을 벗고 사회인으로 발돋움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실업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시간이 지나면서 대졸자 스스로가 회복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실업의 시기를 공식적으로 학생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졸업 시점”으로 설정한다면, 졸업 이후 약 1~2개월은 단계모델의 첫 번째인 충격 단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졸업 3개월 이전부터의 정신건강이 좋아진 것은 Brehm(1975)의 반발이론에 따른 통제력 회복의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반발이론에 의한 단기간적 회복이라면 실업이 더욱 장기화 되었을 때 GHQ 수준은 다시 상승하여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양상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졸업 이전의 두 차례의 측정과 졸업 이후 두 차례의 측정을 통해 졸업 이전에서부터 정신건강을 살펴봄으로써, 구직활동과 실업 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하였다. 하지만 네 차례의 반복 측정만으로 졸업 이후의 T3-T4의 GHQ 수준이 낮아진 패턴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첫 일자리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1개월 정도(한국재경신문, 2008년 7월25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기간에 걸친 정신건강 변화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졸업 이후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점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양상이 반발이론에 의한 일시적인 것인지, 수용에 의한 적응기인지를 더욱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정신건강 변화양상의 단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실업 시점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의 장기화에 대한 반응 연구들에서 초기의 부정적 영향의 시점이 실업 이후 3-6개월(Warr & Jackson, 1984, 1985), 6-12개월(Winefield & Tiggemann, 1989)로 비일관된 결과를 보인 이유는 실업의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언제부터 실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 시간에 따른 실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GHQ 총점을 하위 GHQ 우울·불안과 GHQ 부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GHQ 우울·불안은 시간에 따른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GHQ 부적응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GHQ 우울·불안이 실업

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을 말해주며, GHQ 부적응의 변화는 장기 미취업과는 그리 관련이 크지 않았다.

GHQ 부적응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며 현재 자신이 얼마나 일정한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장재운 등, 2006). 대졸자들의 경우, 장기 미취업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정한 활동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 국내에서 대학 4학년 1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기 미취업자가 되었다고 해도 4학년 1학기과 유사하게 구직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성인실업자와는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성인실업자들은 실업 이전에는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며 시간에 짜여진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들의 일상은 실업전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갑자기 이전과 달리 시간이 많아질 것이며, 새롭게 구직활동을 시작해야할 현실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부적응이 실업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성인실업자와 비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의 실업 전 일상생활과 실업 후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들이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신건강 변화와 관련하여 무선희과에서는 초기 절편과 기울기에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었으나, 가속도에는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업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에 있어 어떤 개인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어떤 개인은 더욱 빠르게 완화되지는 않음을 말한다. 이는 대졸자들의 실업 원인이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 제

도적 원인으로 본인의 통제이상의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실업으로 인한 정신건강 변화의 속도에서는 개인차가 확인되지 않았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정체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전의 실업의 연구들에서는 자존감을 비롯한 자기가치에 대한 평가 차이, 개인의 대처 전략에서의 차이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몇몇 연구들을(예: Kinichki, 1989) 제외하고 일 또는 직업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의 개인차가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영향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 특히,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기에 있는 대졸자들에게 직업은 단순히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 그 이상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Johoda, 1981). 그러므로 졸업 이후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들에게 진로 정체감은 중요할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결정이 확고하고 이를 자신 있게 실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개인들은 어려운 실업의 시기를 더욱 견고히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초기치에 있어서의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의 개인차는 존재하였으나 일차식의 기울기나 변화가속도에는 무선희과가 나타나지 않아 개인차가 없었다. 이는 졸업 전인 4학년 2학기 때의 진로미결정의 정도와 직업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수준이 1년 이후 GHQ 수치의 높고 낮음은 결정하지만 정점의 시기나 가속도와는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절편에서 개인차가 있음은 진로미결정이 높고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개인은 초기의 GHQ 수치가 높고, 이러한 개인은 졸업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적으로 높은 GHQ 수치를 유지하였다. 반면, 처음의 진로미결정이 낮고 지각된 통제감이 높은 개인의 초기의 GHQ 수치가 낮으며, 졸업 후 8개월이 되는 시점에도 GHQ 수치가 진로미결정이 높고 지각된 통제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낮게 유지되었다.

이는 실업과 정신건강 연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출가설이나 선택가설이나의 논쟁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초기의 결정된 것이 장기적으로 그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선택가설을 지지한다 할 수 있다. 실업의 영향력은 개개인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정도로 영향을 주어 개인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의 초기값에서의 차이가 1년 이후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선택가설의 지지는 단지 직업관련 변인에만 국한된 것이고 다른 개인 특성 변인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지 못했다.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을 투입한 후에도 개인차를 나타내는 무선효과는 절편과 기울기에서 여전히 유의미했다는 것은 이 변인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이 더 존재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특정 변인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는 HLM을 이용한 비선형 다층모형을 통해 정신건강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이는 이전의 많은 실업 연구들(Feather & O'Brien, 1986; Hammer, 1993; Patterson, 1997; Winefield & Triggemann 1985; Winefield 등, 1991; 장재윤 등, 2004; 장재윤 등, 2006)이 사용했던 다변량 반복측정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층모형 분석은 한 개인의 궤적이 개인에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 한명 한명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절대적 변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차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의 조직 연구에서는 HLM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중단연구(Wanberg, Glomb, Song, & Sorenson, 2005)를 비롯한 횡단연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기존의 연구 물음들을 좀 더욱 진화된 방법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비선형 다층모형은 이차식을 설정함으로써 최고의 정점의 시기와 그 값을 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Frank와 Seltzer (1990)는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선형적 식을 구분하는 분리선형성장모형(piecewise linear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비선형 다층모형의 해석의 어려움을 보완하였다. 한 시점을 중심으로 두 개의 선형식을 설정하는 이 방식은, 시기별로 변인들의 기울기 계수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변인이 어느 시기에 더 유의미하게 관계하는지를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정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개의 선형식을 설정하여 변화 기울기뿐만 아니라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들을 졸업 이전과 이후로 구분, 비교하여 각 계수들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더욱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화와 진로 정체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만을 2수준 모형에 투입하여 살펴봐왔다. 그러나 실업상황에서의 정신건강은

진로 정체감 이외에 다른 변인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예: Warr & Payne, 1983). 예를 들어, 남녀에 따라 정신건강 변화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장재윤 등, 2006), 직업탐색행동(Wanberg, 1997)도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 정체감의 효과가 진정으로 정신건강 변화에 주요한 변인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중요하게 작용된 여러 변인을 투입하여 통제된 후 진로미결정과 지각된 통제감의 효과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1수준 모형과 2수준 모형에 투입하여 이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설명력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KGHQ -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현균, 장재윤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 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연합신문 (2007년 3월 4일). 청년실업 고착.. 체감 젊은 백수 15.4%.
- 오경자 (1998). 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춘계 심포지움*, 65-95.
- 이지영, 장재윤, 김명언 (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1-23.
- 이훈구, 김인경, 박운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87-101.
-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 장재윤, 장은영, 신희천 (2006).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65-87.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83-488.
- 한국재경신문 (2008년 7월25일).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 현대경제연구원 (2007). 학력 인플레이가 청년실업을 부추긴다.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anks, M. H., & Evans, S. T. (1989). Employment and training orientations as a function of gender, careers and labour markets. *Occasional Series No 9. ESRC 16-19 Initiative*, City University, London.
- Brehm, J.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ew York: Academic Press.
- Cobb, S., & Kasl, S. (1977). Termination: the consequences of job loss(Report No. 76-1261). Washington, DC: Washington,

- DC: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Creed, P. A. (1999). Predisposing factors and consequenc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long-term unemployed youth: a longitudinal examin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 81-93.
- Eisenberg, P., & Lazarsfeld, P. F. (1938).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Psychological Bulletin*, 35, 358-390.
- Feather, N. T., & O'Brien, G. E. (1986).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n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121-144.
- Folkman, S. (1997).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and coping with severe stress. *Social Science Medicine*, 45(8), 1207-1221.
- Frank, K., & Seltzer, M. (1990, April). U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model growth in reading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oston, MA.
- Fryer, D. (1985). Stages in the psychological response to unemployment: A disintegrative review. *Current Psychological Research and Reviews*, 257-273.
- Fugate, M., Kinicki, A. J., & Ashforth, B. E. (2004). Employability: A psycho-social construct, its dimension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 14-38.
- Fuqua, D. R., Seaworth, T. B., Newman, J. L. (1987). The relationship of career indecision and anxiety: A multivariate examin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175-186.
- Goede, M. D., Spruijt, E., Iedema, J., & Meeus, W. (1999). How do vocational and relationship stressors and identity formation affect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5, 14-20.
- Goldberg, D. P. (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ammarstrom, A., Janlert, U., & Winefield, A. J.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behavior after leaving school: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 level.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1241, 173-181.
- Hammer, T. (1993).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mong young peop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6, 407-420
- Hannan, D. F., O'Riain, S., & Whelan, C. T. (1997). Youth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Republic of Ireland. *Journal of Adolescence*, 20, 307-320.
- Hartman, B. W., Fugua, D. R., & Blum, C. R. (1985). A path analytic model of career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3, 231-241.
- Hendry, L. B. (1989).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and peers on adolescent life styles and leisure styles. In *the Social World of Adolescents*, Hurrelmann, K. & Engel, U. (Eds). New York: Walter de Gruyter.
- Herr, E. L. (1989). Career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6(1), 5-18.
- Holes, D. S.,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Jahoda, M. (1981). Work, employment and

- unemployment: Values, theories, and approaches in social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36, 184-191.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l, S. V. (1979). Changes in mental health status associated with job loss and retirement. In J. E. Barrett, R. M. Ross & G. L. Klerman (Eds). *Stress and Mental Disorder*. New York: Raven Press.
- Kaufmann, H. G. (1982). *Professionals in search of work*. New York: Wiley.
- Kinicki, A. J. (1989). Predicting occupational role choices after involuntary job lo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204-218.
- Kossek, E., Roberts, K., Demarr, B. (1988). Career self-management: A quasi-experimental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raining intervention. *Personnel Psychology*, 51(4), 935-962.
- Leana, C. R., & Feldman, D. C. (1992a). *Coping with Job Loss: How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Respond to Layoff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Leana, C. R., & Feldman, D. C. (1992b). The psychology of job los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12, 271-302.
- Leana, C. R., Feldman, D. C., & Tan, G. Y. (1998). Predictors of coping behavior after a layoff.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85-97.
- Lock, E. A., Shaw, K. N., Saari, L. M., & Latham, G. P. (1981).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90, 125-152.
- McArdle, S., Waters, L., Briscoe, J. P., & Hall, D. T. (2007). Employability during unemployment: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and human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247-264.
- McGreevy, M. (2003). The changing nature of work. *Industrial and Commercial Training*, 35(5), 191-195.
- McKee-Ryan, F. M., Song Z. &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1), 53-76.
- Newman, K. S. (1988). *Falling from grace: The experience of downward mobility in the American middle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 147-154.
- Parker, C. M. (1984). Foreword to the *Forsaken Families*, fagin, L. and Little, M. (Eds). Harmondsworth: Penguin.
- Payne, R., Warr, P. B. & Hartley, J. (1984). Social class and psychological ill-health during unemployment.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6, 152-174.
- Patterson, L. J. (1997). Long-term unemployment amongst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261-280.
- Raudenbush, S. W. (2001). Comparing personal trajectories and drawing causal inferences from longitudinal dat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501-525.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 Data Analysis Methods, second edition. Advanced Quantitative Technique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 Rogosa, D. R., & Brand, D., & Zimowski, M. (1982). A growth curve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90, 726-748.
- Rogosa, D. R., & Willett, B. (1985). Understanding correlates of change by model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growth. *Psychometrika*, 50, 203-228.
- Rowley, K. & Feather, N. T. (1987).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the mood,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ve affect of school 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33-42.
- Saks, A. M., & Ashforth, B. E. (1999)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job search behaviors on the employment status of recent university gradu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 335-349.
- Schaufeli, W. B. (1997).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Dutch findings. *Journal of Adolescence*, 20, 243-260.
-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San Francisco: W. H. Freeman.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Selye, H. (1974). *Stress Without Distress*. New York: Lippincott.
- Spokane, A. R. (1989). Are there psycholog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difficult career decis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6(1), 19-23.
- Stumpf, S., Colarelli, S.,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 Ullah, P., & Brotherton, C. (1989). Sex, social class and ethnic differences in the expectations of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secondary school pupils in Englan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9, 49-58.
- Warr, P. B., Jackson, P. R. & Banks, M. H. (1982). Duration of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men and women. *current Psychological Research*, 2, 207-214.
- Warr, P. B., & Jackson, P. R. (1984). Men without jobs: Some correlates of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77-85.
- Warr, P. B., & Jackson, P. R. (1985). Factors influencing the psychological impact of prolonged unemployment and of re-employment. *Psychological medicine*, 15, 795-807.
- Warr, P. B., & Jackson, P. R. (1987). Adapting to the unemployed role: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4, 1219-1224.
- Warr, P. B., & Payne, R. (1983). Social class and reported changes in behavior after job lo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206-222.
- Wanberg, C. R. (1997), Antecedents and outcomes of coping behaviors among unemployed and reemployed individual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5), 731-744.

- Wanberg, C. R., Griffith, R. F., & Gavin, M. B. (1997). Time structure and unemploymen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 75-95.
- Willett, J. B. (1988).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measurement of change. In e. Rothkopf(Ed.),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1988-89)* (pp.345-422).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Winefield, A. H. (1997).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Adolescence*, 20, 237-241.
- Winefield, A., H. & Tiggemann, M. (1985). Psychological correlate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school-leaver: Effects, predisposing factors and sex differenc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8, 229-242.
- Winefield, A., H. & Tiggemann, M. (1989). Job loss vs. failure to find work as psychological stressors in the young unemployed.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2, 79-85.
-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Goldney, R. D. (1991). A longitudinal study of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o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3), 424-431.
- Wortman, C., & Brehm, J. (1975). Responses to uncontrollable outcomes: An integration of reactance theory and the learned helplessness model.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8-336. New York: Academic Press.

1차 원고접수 : 2008. 10. 8

2차 원고접수 : 2008. 11. 22

최종게재결정 : 2008. 11. 23

Career Identity Effect on the Change of Mental Health among Unemployed University Graduates: applying nonlinear multi-level model

Jee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Yoon, Ch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echeon, Shin

Ajou University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of mental health and career identity effect among unemployed university graduates applied with nonlinear multi-level model.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pattern of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and GHQ two subscales -GHQ depression, and GHQ disadjustment- with HLM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GHQ score (including two subscales) of unemployed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T1, T2 and graduation time and it was the highest 1~2 month later after graduation. It meant that unemployed university graduates had the worst mental health after graduation. From this point, GHQ score began to decrease smoothly until 5 month after graduation. GHQ and GHQ depression significantly changed over the time, but GHQ disadjustment didn't.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areer identity effect(consisting of career indecision and perceive control) on GHQ change. The unemployed who had higher level of career indecision and lower level of perceived control had higher level of GHQ at the initial stage(T1). In addition, they had constantly maintained the higher level of GHQ over the time. On the other hand, the unemployed who had lower level of career indecision and higher level of perceived control held low-leveled GHQ.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of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Unemployed university graduates, mental health, nonlinear multi-level model, GHQ, career indecision, perceived control. HLM